

2024-01-08 (2024-02호)

01월 08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견조한 美 고용 이후 나오는 물가 주목... 연초 달러 행보 기웃

서울, 1월8일 (로이터) -

미국의 견조한 고용 여건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중에 나올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 연초 달러 방향이 결정되고, 원화는 이러한 달러와 대체로 보폭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0-1,330원이다.

작년 말과 달리 연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달러/원은 1,300원대로 올라 하방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조정은 지난 주말에 나온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중에 나오는 미국 12월 물가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반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는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2% 상승해 11월 0.1%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달러가 폭넓게 약세 전환하지 않는다면 달러/원은 당분간 1,300원을 크게 이탈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편, 주 후반이지만 중국 물가지표도 주목된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우려에 타격받았던 위안이 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3일 실시될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위안화 반응도 관건이다.

한편, 국내 이벤트로는 한국금융위원회 정책회의가 열린다. 올해 첫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로 8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회의도 열릴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할 전망이다.

한편, 작년 11월 국제수지(잠정) 및 2024년 달러/원 시장 선도은행도 발표될 예정이다.

(박예나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美 인플레이션 : 환호나 공포나

미국 주식과 채권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말 급등했다. 11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러한 기대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지면서 중앙은행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졌다. 12월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신호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급격한 둔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를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물리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장이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2% 상승해 11월의 0.1%보다 다소 속도를 냈을 것으로 예상됐다.

### ⊙ 전쟁과 해상운송 차질

시장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가를 주시해 왔지만, 공급 과잉 전망으로 인해 유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운송업체들이 홍해를 피해 선박 경로를 변경함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화물 산업이 침체된 이후 가장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서구 소매업체들은 중국에서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더 오래 기다리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무역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한다. 영국 소매업 컨소시엄은 비용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유가에 더 초점을 맞춰온 시장은 지금까지 홍해 운송에 대해 제한적인 우려를 보이는데 그쳤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있는지 운임 비용을 모니터링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 ⊙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표

호주, 중국, 일본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 올해 할 일이 늘어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중앙은행은 11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경우 다소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반면 전국 인플레이션 추세의 선행 지표인 도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일본은행(BOJ)의 정책 전환에 베풀하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12월 엔화는 달러 대비 5% 절상된 바있다.

12일 발표되는 중국 물가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 ⊙ 美 대형은행 실적 발표

12일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을 시작으로 미국 대형은행들의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

표가 시작된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더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은행이 오랜 거래 수익 부진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팬데믹 이후 가계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은행들은 작년에 부실화된 오피스 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많은 직원이 원격 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계속하는 가운데 사무실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사무실 소유주는 더 큰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 암호화폐 ETF 기대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당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베팅으로 지난해 말과 같이 연초 급등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ETF가 곧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베팅에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SEC의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에 새로운 자본의 물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2023년 비트코인은 연간 15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이미 올해 들어 얻은 상승분을 축소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존재할지, 그리고 승인 여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8일(월)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12:00)
- ⊙ KDI: KDI 경제동향(2024. 1) (12:00)

1월9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08:00)

1월10일(수)

- ⊙ 금융감독원: 2023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07:30)
- ⊙ 통계청: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8:00)
- ⊙ 한국은행: 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1월11일(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경제상황평가(2024.1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4:30)

1월12일(금)

- ⊙ 기획재정부: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0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 8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월	-15.5	-16.8
1월 8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1월	-0.3%	0.1%
1월 8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1월	6.5%	6.5%
1월 9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2월		113.05
1월 9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1월	9.00B	5.13B
1월 9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1월	-2.3%	-2.5%
1월 9일	08:30	일본	도쿄 CPI	12월		2.6%
1월 9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2월		90.60
1월 10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월5일 주간		173.5
1월 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2월		10.0%
1월 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2월		1,090.0B
1월 10-17일		중국	FDI (YTD)	12월		-10.00%
1월 11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2월		1,269.7B
1월 11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1월		0.2
1월 11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1월		-0.4
1월 11일	22:30	미국	CPI MM, SA	12월	0.2%	0.1%
1월 11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1일 주간	210k	202k
1월 12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2월		-314.00B
1월 12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2월		2.8%
1월 12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1월	2,385.1B	2,582.8B
1월 12일	10:30	중국	PPI YY	12월		-3.0%
1월 12일	10:30	중국	CPI YY	12월		-0.5%
1월 12일		중국	수출 YY	12월		0.5%
1월 12일		중국	수입 YY	12월		-0.6%
1월 12일	22:30	미국	PPI MM	12월	0.1%	0.0%
1월 13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1월		-0.7%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中, 주식시장 지원 위해 주식형 펀드 우선 출시 요청 - 소식통

홍콩/상하이, 1월5일 (로이터) -

침체된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일부 펀드 매니저들에게 채권형 펀드 등 다른 상품보다 주식형 펀드를 우선적으로 출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네 명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최대 뮤추얼 펀드 운용사들에게 '창구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CSR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종합 2)-하나은행-SSBT 홍콩, 첫 스팟거래 체결

서울, 1월2일 (로이터) -

올해부터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2일 국내은행과 RFI의 첫 거래가 이뤄졌다.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RFI로 등록된 스테이트스트리트(SSBT) 홍콩이 처음으로 달러/원 현물 거래를 체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 거래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라 시행전 등록을 마친 RFI와 국내은행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체결한 첫 번째 달러/원 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현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연장된 시간대 시장조성자 역할과 국외 점포를 활용한 RFI 참여 등을 통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주도해 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헨리 큐크 SSBT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마켓 헤드는 "역외에서 한국 FX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이 FX 시장 구조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 고객이 한국 FX 역내외 시장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올해 상반기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하반기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예나·김주연·이지훈·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일방적 하락 쉽지 않을 듯... 과도한 美 금리 인하 기대 경계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

달러/원 환율은 1월에 하방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지만, 과도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에 기댄 일방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67.8-1,320.6원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1월에도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며 달러 약세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달러/원 환율 하단을 지지했던 결제 수요가 연말에 어느 정도 소화된 점도 하락 재료로 꼽았다.

다만, 일부 시장참가자는 달러/원의 추세적 하락 또는 강한 하방 압력을 기대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르면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 중인 시장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경제지표를 통해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증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자극되며 달러/원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달러 약세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 외에도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위안 약세와 국내 부동산 PF 불확실성이 달러/원의 일방적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부장	1280	131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60	132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70	1315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270	1320
IBK기업은행	임기목 차장	1280	133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270	1310
NH농협은행	최종화 차장	1250	132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270	132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60	1340
평균		1267.8	1320.6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달러/원 월간 전망 ②)-일방적 하락 쉽지 않을 듯... 과도한 美 금리 인하 기대 경계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

달러/원 환율은 1월 하방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나, 과도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 등에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67.8-1,320.6원으로 제시됐다.

###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미국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미국 국채 금리에도 반영되고, 달러지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달러/원 상단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 EU쪽 경기도 그리 좋지 않으며, 미국도 경착륙까진 아니더라도 연착륙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지표가 틈틈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환율의 일방적 하락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여건 아닌가 싶다. 1,280원 부근에서는 지지력 좋을 듯하며, 1,310원까지는 언제든지 되돌림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에 있다고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10원

###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미국 10년물 금리가 피벗 기대감에 고점 대비 120bp 가까이 하락하며 달러 약세 트렌드가 1월에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1,300원 아래에서 강한 결제 수요가 받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분위기다. 이에 연초 달러 약세에 베팅하여 숏 포지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하단을 지지하며 기술적 반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60-1,320원

###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FOMC 회의에서의 비둘기적 코멘트 영향 속 FOMC 의사록 역시 금리인하 기대감을 줄 것으로 보여 글로벌 달러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중앙은행의 정책속도 차이가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월은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대감 속에 수급과 지표에 연동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 상으로는 생각보다 수출업체 네고가 1,300원 아래에서 크게 보이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에너지 업체의 결제수요가 선대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연초 주식시장의 혼풍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수급상 균형을 줄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로 보인다. 연중 전망이 달러 약세임에도 1월은 조심스러운 움직임 속에 주요 이평선이 포진한 1,315-1,320원을 상단으로 한 다운된 레벨의 레인지를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15원

### ▲ 이용주 차장 (DGB대구은행)

"최근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과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할 듯하다. 연착륙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금리를 급하게 인하할 이유 없고, 중국도 부동산 이슈가 터질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기본으로 깔고 있다. 원화 기조적 강세로 전환하려면 한분기 이상 1,270, 80원 밑에서 안정되어야 하는데 당장 1월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20원

▲ 임기묵 차장(IBK기업은행)

"시장이 현재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를 풀반영하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3.7%이면 더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며, 달러지수도 빅피겨 100을 뚫기 어렵하다. 달러/원 1,290원은 너무 탄탄하다. 1월은 달러 강세쪽 탄력이 약간 세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당장의 악재는 없기 때문에 치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이나 물가 지표 이제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상승 탄력은 클 듯하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30원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내년 상반기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프라이싱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하락하거나 증시 호조 보이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월 나오는 경제지표에서도 미국 경기 둔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하방 압력 계속 이어갈 듯하다. 다만 시장이 유로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프라이싱 안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에 대한 온도 격차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 좀 돌리게 된다면 어느정도 반등할 여지도 남겨둬야 할 듯하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10원

▲ 최종화 차장(NH농협은행)

"점진적 하락 예상한다. 연준 피벗 기대감이 여전하기에 글로벌 달러 약세 보일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는 듯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유가 안정적이기에 달러/원 하방 압력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월 발언으로 피벗 기대감이 있는데 경제지표 둔화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ECB 등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국내 부동산 PF 불확실성 있다는 점 생각하면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 예상 거래범위 1,250-1,320원

▲ 오창섭 연구원(현대차증권)

"1월 달러/원 환율도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약세 압력 지속되리라 예상한다.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금리인하 마무리와 함께 달러가 약세 전환했다. 특히, 올해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채권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부각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금리인하 지연 및 글로벌 경기둔화 압력으로 인해 일시적 달러 반등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채권금리 하락사이클 전개와 함께 달러도 약세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2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12월 FOMC 이후 글로벌 약달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12월에는 주요 통화 중 엔화의 강세가 두드

러졌는데, 일본과 달리 올해 6월 이후로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역시 빠르게 둔화되며 미국과의 CPI 상승률 차이가 재차 오름세다.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4개월 연속 기준선(50)을 하회하며 50선 위에서 선방하는 미국과 다른 양상이다. ECB의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달러의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엔화보다 유로화 움직임이 중요한데, 경기 펀더멘털 및 물가 흐름을 볼 때 달러지수의 지지력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달러/원과 연동이 강한 위안화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현 레벨에서 환율이 하락 압력도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60-1,340원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